

출가자라면...

우리의 세속적인 삶에서는 이 해독실을 따지고 살기 때문에 다름이 잦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더불어 살기 위하여 도덕과 질서를 지키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으므로 강제 규정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지키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우주적인 큰 자유를 향유하면서 살기 위하여 출가사문이 되는 것이다.

세속인들도 이미 있으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합리적인 사고와 인내가 여간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그 길이 험난하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요즘 조계종의 집안싸움은 참으로 마음을 아프게 한다. 대학교에서 철학, 그것도 불교철학을 가르치는 나로서는 더욱 그렇다. 불경(佛經)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평화정신의 실천이다. 티벳은, 중공의 잔악한 침략으로 100만여 명의 생명을 잃고 나라마저 빼앗겼지만, 자신들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세계의 어디에서도 테러를 자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달라이 라마의 평화정신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분은 불살생계를 자각(自覺)한다. 생애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높이 평가받아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세계적인 시사방송인 CNN이나 BBC에까지 사문들의 싸움하는 장면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불교가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은 무엇때문인가? 기본적으로 수행인의 자제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가한 자를 두고 오는 적이라도 자비와 지혜를 힘으로 삼아 조복시켜야 할 부처님의 제자들이 아닌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데 생명을 걸어야지, 종편을 위해 추잡한 꼴을 보여서...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권칭한 대로 조계종이 살길은 무엇인가? 싸움질을 그만두고 뭉쳐서 화

합하는 길뿐이다. 귀감으로 삼을 옛날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옛날에 한 할아버지가 무릎을 하나 얻어왔다. 할아버지는 이 씨앗을 텃밭에 뿌려서 잘 가꾸었다. 김을 내고 거름을 알맞게 주어서 무가 커다랗게 자랐다. 할아버지는 가을이 되어 이 무를 뽑으려고, "어여차, 어여차"하고 힘을 주어 잡아당겼다. 그러나 뿌리가 너무나 크게 자라서 혼자 힘으로는 뽑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불렀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힘을 합쳐 "어여차, 어여차"하고 무를 힘껏 잡아당겼으나 끄떡도 안 했다. 아무리 그 길이 험난하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요즘 조계종의 집안싸움은 참으로 마음을 아프게 한다. 대학교에서 철학, 그것도 불교철학을 가르치는 나로서는 더욱 그렇다. 불경(佛經)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평화정신의 실천이다. 티벳은, 중공의 잔악한 침략으로 100만여 명의 생명을 잃고 나라마저 빼앗겼지만, 자신들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세계의 어디에서도 테러를 자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달라이 라마의 평화정신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분은 불살생계를 자각(自覺)한다. 생애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높이 평가받아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세계적인 시사방송인 CNN이나 BBC에까지 사문들의 싸움하는 장면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불교가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은 무엇때문인가? 기본적으로 수행인의 자제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가한 자를 두고 오는 적이라도 자비와 지혜를 힘으로 삼아 조복시켜야 할 부처님의 제자들이 아닌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데 생명을 걸어야지, 종편을 위해 추잡한 꼴을 보여서...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권칭한 대로 조계종이 살길은 무엇인가? 싸움질을 그만두고 뭉쳐서 화



이평래 (충남대 교수·철학과)

충-칼 들고 오는 적이라도 자비와 지혜로 조복시키거늘...

공생위한 생명과학 발전 인류-생태계 악영향 우려

인간복제 · 유전자 조작 속출...강력 규제 절실

'인간과 소의 세포 결합', '인간과 원숭이 합성', '간, 뼈, 혈액 등 필요한 조직 선택 배양',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개발', 복제 양 물리 탄생이후 잇달아 화제가 되고 있는 생명과학 기술의 발전은 자칫 인류와 생태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기에, 생명공학의 윤리성과 위험성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인간복제

유네스코는 10일 '세계 인권선언 50주년 회의'에서 '유전자의 인권 보호'를 의제로 인류보존·인종차별 방지를 위해 생명공학에 대한 보편적 윤리규약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앞서 유네스코는 지난달 11일 제29차 총회에서 '인간계통(유전자+염색체)과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 주요점은 이 분야에서 과학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되 연구결과의 잠재적 남용으로부터 인권과 인간성을 보호할 수 있는 보편적인 윤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도 최근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과 생명

윤리에 관한 제1차 합의회의'를 열고 "유전자조작 등 생명공학 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합의회의 또는 기술영향평가제도 등으로 제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정부는 행정·재정적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

한편 유전자를 조작해 재배한 미국산 콩이 5일 대량으로 인천 외항에 들어온 것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안

전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 등은 "유전자조작 곡물은 예측할 수 없는 인체독성을 낳거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수입이 규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전자 조작의 위험성

건축물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생명체의 유전자, 건축물이 설계도에 따라 지어지듯, 생명체는 유전자에 의해 형성되기에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반인반수의 괴물

사람을 잡아먹는 식물도 가능할 것 같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의 대규모 방출은 자연종이 유전적 변종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 이종간 교배를 통해 의도하지 않은 유전자 전이가 일어날 가능성, 새로운 병원균이 진화할 가능성 등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일단 자연환경에 방출된 GMO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며, 스스로의 진화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변이된 유전자가 들어있는 농·수산물에 암, 독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은 4일 서울 용산 농수산물유통공사 앞에서 유전자 조작 콩 수입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을편의 눈 "사람 몸 받기 어렵거늘..."

자기 자신을 복제한다면 '그것'은 자신인가, 자식인가, 제3의 타인인가. 그것을 부양해야 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인간복제를 '출생'으로 볼 수 있는가. 생명공학의 가공할 발전으로 머잖아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날도 올 것 같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타고 나기 어렵기 우담화(優曇花)의 꽃핀 것을 만나는 것 같거늘, 나는 이제 얻었도다."(보발

경)라고 설했는데, 이런 가르침도 틀린 것일까. 하늘과 땅 사이에 내(인간)가 가장 존귀하다(天上天下唯我獨尊)는 부처님의 인권선언도 인간의 상품화로 헛말이 되는 것일까. 유전자 조작을 통한 인류·생태계의 재앙을 막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그것은 역시 장차 '부처님이 될'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이란 마지막 희명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거꾸로 가는 환경정책

환경·사회단체 올 10대 뉴스 그린벨트 해제·동강댐등 선정

올 왕따 피해학생 5천4백명

학생들 사이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을 일컫는 이른바 '왕따' 현상이 올 들어서만 무려 4천여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7일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중앙추진본부 주최로 열린 '학교폭력근절 대토론회'에서 올해 1~9월 전국 초·중·고생들을 상대로 한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 모두 4천여건(피해학생 5천4백명)의 집단따돌림 현상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95년 한해 '이じめ' 건수가 5만7천여건에 달하는등 90년대 중반까지 극성을 부리다 최근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보다 새로운 시각에서 '왕따' 현상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으로 대변되는 98년은 '환경정책의 전면적 후퇴'라는 오명을 벗어날 길 없는 한 해였다

그리고 규정보다, 이로인한 환경파괴와 국민의 삶의 질적 하락을 중심으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①위 그린벨트 정책 대폭후퇴, ②위 영일 동강댐 반대운동 및 백지화 가능성 ③위 새만금간척사업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공방, ④위 팔당호 수질대책

PC통신 사이버 윤락조직 적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해 윤락을 알선해 온 이른바 '사이버 포주'가 처음으로 검찰에 적발됐다. 더구나 이 사람은 놀랍게도 신학대학 후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서울지검에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석규(27)씨는 PC통신 대화방을 통해 여대생과 대졸 직장여성 등 10여명을 윤락녀로 모집, 남자 고객에게 알선해 주고 1천여만원의 행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일 비서' 광고, 이벤트, 전화방, 폰팅, 화상 대화방, 원조교제 등을 통한 신종·변종 매춘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확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심야 전력기기

IMF·고유가시대 기름값 걱정해소방법

■심야전력기기란: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 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름 보일러보다 약 1/3-1/4수준의 난방비를 따듯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풍,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자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겨울철 난방비를 70% 이상 절약합니다.

■심야전력기기의 장점: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심야전력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통풍의 염려가 없습니다.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므로 미취학아동 난방에 적합합니다.

전국사찰 심야전력기기·전력공사 전문업체
금강산업·금강기전

■문의전화
0343)468-7200(대)
0343)445-6090
FAX : 0343)445-3370

신비한 우주 에너지(빛) 발생장치, 명상용

수정 피라미트 히란야!

재질순동 천연 수정, 히란야 10개 부착, 대형코팅 히란야 및 고급 기에너지 발생 테이프 증정!

● 피라미트 히란야 '의료용' '氣' 발생기구 : 특례형 의장 특허등록 NO. 204454, 223495, 227171, 227172, 227173

● 피라미트 히란야 사후시 원인불명의 두통, 불면증, 해소되고 치매예방 및 호전가능하고 체질이 급격히 개선된다.

● 깨달음과 영적각성 및 차크라 개발을 촉진시키는 고차원의 빛 에너지가 대량 생성된다.

● 인체에 유해한 수백을 차단하며 컴퓨터, TV 등 전자제품의 인체 유해전자파를 중화·소멸시킨다.

우주명파와 피라미트 히란야 문덕출판사

한국 피라미트 히란야 체질개선 연구회 부설 문덕출판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305-1 보라B/D 303호
TEL. 792-0960, 0966
창원지원: 0551)268-5338, 부산동호회: 051)517-0236

氣 치료 능력 전수

수년 혹은 수십년씩 기공 수련을 해야 가능했던 氣 치료 능력, 氣 응용 능력이 비법의 개발과 그 과학화에 힘 입어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는 일로 바뀌었다. 레이키(REIKI·靈氣)요법이 그 비법이다. 레이키 요법은 그 비법정도로 인해 전승이 끊겼던 티베트 밀교의 한 비법이 20세기 초엽에 일본의 수행자 우스이 미카오(1865-1926)에 의해 재발견된 후 미국으로 전승되어 미국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그 방법이 과학화, 표준화, 체계화, 간략화되면서 1980년대부터 영공 등의 의도신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세계화되고 있는 氣 치료법, 氣 응용법이다.

국민 대다수가 건강 불만과 생활불만을 안고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간편하고 더욱 효과적인 건강법과 생활법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는 것이 레이키 요법이다.

이 레이키 요법은 자격있는 레이키 마스터에게서 전수만 받으면 누구나 단시간에 氣 치료능력, 氣 응용능력이 될 수 있는 비법 중의 비법이다.

① 레이키 요법의 전수 절차
레이키요법의 전수는 모두 3단계로 이루어지며, 총소요일수는 5~10일 정도이다. 필요하면 이 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도 있다.

② 레이키 요법의 전수 대상자(4세~83세)
① 스님을 비롯한 성직자와 의사들의 의료적 종사자
② 남에게 좋은 일하며 살기를 원하는 분
③ 새로운 직업(레이키 요법)을 가지려는 분
④ 만성병을 스스로 치료하고 다스리려는 분
⑤ 만성병을 앓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
⑥ 가정과 사회를 평화롭고 운세 좋게 하려는 분
⑦ 자기와 우주, 이 세상과 저 세상, 명제와 암재가 한 덩어리임을 깨달으려는 분

③ 레이키 요법의 응용
① 음식물, 물, 약, 씨앗, 사료등에 氣를 넣는데 쓰인다.
② 감정, 마음, 카르마(업),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행동 장애 등을 개선하고 영성을 개발하는데 쓰인다.
③ 미용효과 단식효과를 올리는 데 쓰인다.
④ 원격치료, 동식물의 치료, 환경을 정화하는데 쓰인다.
⑤ 소망성취, 미래에 일어날 일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데 쓰인다. 기타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하다.

레이키마스터 번역 저술가 박희준 (朴熙俊)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 피어선 B/D
한국레이키요법 연구학회 (02)720-5682, 725-2311

돌안경

대덕 스님들께 인사 올립니다.

서울 흑석동에서 '세신안경점'을 운영하던 이성욱입니다.

흑석동에서 운영하던 심수년 간 저희 돌안경을 찾아주시고 애용해 주시던 스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IMF 환파와 수공작업의 어려움으로 가게를 정리하고 외국으로 가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신행생활의 일환으로 스님들을 위한 돌안경을 꾸준히 가공해 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100벌의 돌안경을 스님들께 선물하는 마음으로 저렴한 가격에 드리고자 합니다. 세신안경의 돌안경을 아껴주시는 스님들 연락 부탁드립니다.

※ 12월 8일~97년 1월 8일까지 ※
스님 100분에 한해 돌안경 10만원에 보급 (보안경 한벌에 10만원)

분당세신음니코아 세신안경
TEL : 0342)703-5049 (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이성욱 합장